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적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이정후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안선경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양숙희

目 次

I. 서 론	IV.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적 경향
II. 이론적 배경	1. 변형성(Deformation)
1. 매너리즘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2. 모호성(Ambiguity)
2. 매너리즘의 일반적 특성	3. 비합리성(Irrationality)
3. 매너리즘시대 복식의 특성	V. 결 론
III.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상관성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복식은 각 시대의 정신적 산물이므로 복식이라는 복잡하고 다변적인 대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퇴적시킨 인간의 정신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현대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던 매너리즘은 유럽에서 정치, 경제, 예술 및 정신사조 등 모든 영역에 파급되었던 예술사조로서 최초로 예술가 자신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인적 감성에 호소했던 양식이다. 매너리즘을 발생시켰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흐름, 특히 인간소외라는 절대적인 정신적 위기상황은 수백 년이 지나 21세기를 바라다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치의 다원화, 모순의 양립, 이질성의 수용, 불확실성 등

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의 전반적인 상황이 16세기의 매너리즘 상황과 유사하다는 레이 스미스(Ray Smith)의 주장에 주목하여 현대복식에서 매너리즘 경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과거와 현재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매너리즘의 개념과 그것이 태동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매너리즘 시대의 복식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서 16세기의 매너리즘과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대복식에서 매너리즘 경향이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과거는 현재와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얻게 되고 역사는 늘 현재라는 맥락에서 재 규정된다는 점에서 현대와 커다란 연관성을 갖는 매

네리즘에 대한 고찰은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국내외 저서, 논문 등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론적 결과를 시작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 및 표자료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매너리즘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매너리즘(Mannerism)은 16세기 전 유럽을 통요시키고 정치, 경제, 정신 생활 등 모든 영역에 파급되었던 위기의 예술적 표현이었다. 그 이전에도 위기의 시대, 혁명의 시대는 있었지만 16세기에 들어서 최초로 예술가의 개인적 입장을 존중하며 감상자의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는 양식이 생겨났다.

바사리(Giorgio Vasari)는 르네상스의 마지막 거장 라파엘이 사망한 1520년부터 1600년까지를 반고전적 매너리즘의 시기로 보았다. 그는 15세기부터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근거한 회화작업을 하는 화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니에라(manier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¹⁾ 원래 마니에르(manière)는 방식, 수법, 버릇, 작품, 기(技) 또는 부자연하게 꾸민 것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고 작품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특수한 개성적 특색을 말하는 것으로,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의 어떤 면에서 의식적으로 기교적이고 앙성적인 스타일을 추출해 낸 16세기 중반의 로마와 피렌체의 화가그룹을 지칭하는 말이다.²⁾

매너리즘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양식개념으로서의 매너리즘(mannerism)과, 가치개념으로서의 매너리즘(Mannerism)을 구별하여야 한다. 예술사 발전으로서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일치되기도 하지만 예술사에 있어서 하나의 확립된 양식으로서의 매너리즘과 가치개념으로서의 매너리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대한 견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 벨로리(Bellori)가 쓴 안니발레 카라치(Annibale Carracci)의 전기에서이다.³⁾ 그는 매너리즘을 실례에 근거를 둔 변덕스런 자가 과장이라고 했으며, 사이퍼(Sypher)는 매너리즘을 일시적인 질서의 분해라고 설명하는 등 대부분 매너리즘시대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20세기초에 이르러 페브스너(Pevsner), 펀더(Pinder), 드보로작(Dvorák) 등이 1920년대 예술의 특성을 연구하면서부터 매너리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하우저(Arnold Hauser)는 매너리즘을 우리 시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르네상스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현상들이 고정된 부동의 중심적 주위를 도는 동심원의 환을 이루는 체계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확신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그 정점에서 서서히 붕괴해 간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은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과학 기술상의 큰 변화로 불안과 혼란이 모든 영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변혁은 근대 최초의 제국주의적 강대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침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군과 스페인군의 침략으로 자국의 영토가 양제국의 각축장이 되자 큰 충격과 불안과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해 광대한 영토와 부유한 금력을 가진 통일 된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기계 및 근대적이고 합리화된 노동조직이 도입되면서 소수에 의한 생산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문화와 결부된 생산의 기계화에서 비롯되었던 바, 인간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疎外)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적 소외의 발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시대는 그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⁴⁾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종교적·사상적 변화 역시 현저하게 전개되었다. 16세기초에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전 유럽적인 것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은 카톨릭 교회의 쇠퇴와 형식주의적 타성에 있었다. 인간을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연의 수준으로 환원시킨 16세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상의 미와 폐락을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중세적 세계가 강조하던 죄의식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가져왔다.

르네상스의 위기와 붕괴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몽테뉴(Montaigne)의 회의주의(懷疑主義)는 반르네상스적 정신의 표명이자, 중세로부터 확고해진 가치 세계의 붕괴를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이다. 또한 현실적 정치이념을 옹호한 사상가인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군주론」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완전무결하고 자족된 정신계를 깨뜨려 버렸고, 정치적 사상과 행동의 자율이라는 관념을 지식과 경험의 여러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거 수세기 동안에 걸친 동질적이며 조화적인 인생관에 회의를 품게 했다.⁵⁾

과학적 측면에서의 혁명은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의 지동설이었다. 이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믿고 있던 세계에서 인간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그 동안 믿어 왔던 진리의 순수성도 확신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은 그때까지 절대적이며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어온 진리의 상대성을 인식하는 첫 걸음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대변혁은 인간의 청체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외라는 정신적 위기의 대두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하우저는 르네상스의 위기 시대에 비로소 소외가 의식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미친 영향은 매우 혁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개념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대변동의 여러 가지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

한 분모라고 말하였다.⁶⁾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생겨난 물질화 현상, 자아의 박탈 및 주관성의 상실, 외재화(外在化), 인간의 완전한 상태의 상실, 주체로부터 객체로의 전환, 인격 및 인간성의 상실 등을 이르는 소외를 반영하는 매너리즘 시대는 개인주의와 개인이 지닌 다양한 권리를 발견하고 강조한 시대였다. 즉, 매너리즘은 소외의 표방이자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불안과 고통, 소외를 표현하는 자의식적 표현 양식인 것이다.

2. 매너리즘의 일반적 특성

하우저는 매너리즘의 특성을 반고전주의와 반자연주의, 근대적 인간의 탄생으로 보았으며, 김진범⁷⁾은 16세기 이태리 매너리즘 건축의 소외표현을 개인주의 개념의 변화, 반고전주의, 이원성(二元性)으로 나누었다. 또한 윤항수⁸⁾는 매너리즘 건축의 특성을 변형성, 다의성, 대비성, 비합리성으로 나누었다. 포스트 모던 건축에서의 매너리즘 특성을 대해 연구한 박홍서⁹⁾는 스케일의 조작이나 요소들의 파괴와 변형을 통한 형태조작, 구조적 표현을 무시하거나 구성요소들의 불일치한 배치로 인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표현, 부분들의 전체 속에서의 통합, 조화, 질서 대신에 표면과 공간에서의 대비, 다변형(多變型) 개념(multivariate idea)과 특성 있는 요소들의 결합, 과거의 형태요소를 장식적으로 부착하거나 변형된 장식부가, 환상적 의미전달을 위한 이미지의 창조라고 분류하였다.

매너리스트들은 미와 표현 사이, 전통과 혁신 사이, 이상과 현실 사이, 그리고 창조와 모방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며 의식에 의한 창작과정을 통해서 긴장을 나타내는 파라독스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모든 일이 언제나 애매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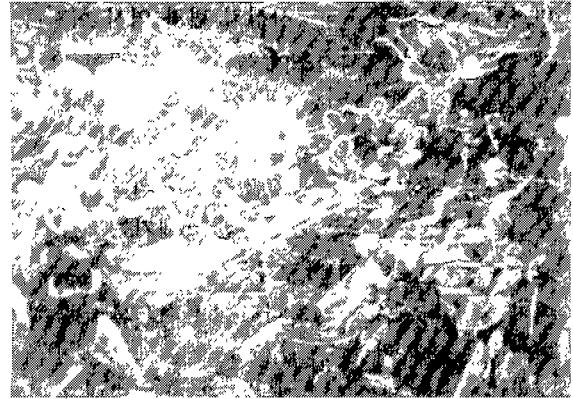
에서 일반적으로 양립되지 않는 요소를 결합하는 파라독스 즉, ‘이율배반성’과 ‘생 자체의 모순’을 예술에 표현하였는데, 이 모순은 매너리즘 세계관에 깃들인 변증법적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리와 현실에 충실하려면 모든 ‘단순화’를 피하여 사물을 복잡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은•매너리스트의 절충적인 자기표현을 넣었으며, 이중적인 요소들을 병치하고 인용하는 방법의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파라독스의 개념은 매너리즘 대부분의 현상을 포괄하는 정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¹⁰⁾ 즉, 매너리즘의 본질은 인간정신을 나타내는 이데아(Idea)와 시대상황이 만든 소외현상과 이원성을 충화시킨 역설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너리즘의 특성을 매너리스트들의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자의식적 표현의 기저인 파라독스(paradox)를 중심으로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으로 제시하였다.

(1) 변형성(Deformation)

매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요소의 변형은 모든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 준수되던 비례체계는 고의적으로 파괴되고, 요소들의 생략, 축소 그리고 과장이 심해진다. 예리함이나 미묘한 것, 기이한 것, 긴장된 것, 난해하고 자극적인 것, 통렬하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고전적 형태를 과감히 변형시키는 것이 매너리즘 전 성기를 통해 나타난 특징이었다.

예를 들어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적인 회화인 틴토레토(Tintoretto)의 <최후의 만찬>은 변형성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1). 틴토레토는 이 작품에서 성서적인 내용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주변의 다양한 모습들을 배경에 포함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적이며 혼란스러운 이 그림에서 다빈치의 통일성과 안정감, 평정 등의 가치관념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림 1〉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
『미술의 역사』, p.416

(2) 모호성(Ambiguity)

모호성은 이전 시대의 명료한 분절성보다는 각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매너리즘적 특성의 하나이다. 구성요소들을 병치, 절충하는 절충주의 수법은 매너리스트들의 분열된 정신세계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합·융합하려는 노력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호성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건축이었다. 개별성 있는 부분 요소들이 모여 모순되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는 매너리즘 건축에서는 전 시대의 명료한 분절성 보다는 입면의 각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이런 폴라주적인 수법은 그들의 분열된 정신세계를 반증하는 것이자 현실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매너리즘시기에 대두된 양식의 혼합은 시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것이며, 후기에 갈수록 보다 민족적이며 감정을 중요시한 바로크에 가까워지는 것은 변증법적인 순서라 볼 수 있다. 또한 절대 법칙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다가온 개인주의 문화는 매너리스트들을 자유로운 창작의지로 충만케 했으나 계속되는 변혁의 틈새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건축을 더욱 불명료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며, 불안과 고통 그리고 소외가 내재되어 있다.

(3) 비합리성(Irrationality)

비합리성은 매너리즘의 '기교주의적 특성'을 쉽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며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갈등의 표현이기도 하다. 매너리스트들은 현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작품에 반영시키길 희망했으며 이런 경향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매너리스트들의 희망은 작품 속에서, 현실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꿈과 같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연출되기도 했다.

장식성이 부각되는 것 역시 비현실적 표현방법에 속한다. 대부분 구조적으로 역전된 기능으로 자기발동적인 정신의 자발성을 강조한 매너리즘은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갖가지 디테일들을 창출해 냈으며, 바로크에 와서 비로소 통합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매너리즘의 발생배경과 조형 특성을 르네상스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매너리즘시대의 복식

일반적으로 르네상스시대의 예술과 복식은 조화와 균형, 통일, 대칭과 질서 등 협의의 미와 연관시키는 반면, 바로크시대의 예술과 복식의 미적 범주는 비대칭, 부조화, 기이한 형태의 추, 여성적

이며 부드럽고 경쾌하고 환상적인 우아, 장엄과 권위의 숭고와 연관시켜왔다.¹²⁾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기초한 미적 범주의 설정은, 특정시기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흐름을 각각 고찰한 것이라기보다는 16세기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형예술의 전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처럼 상반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개의 인접한 예술사조는 단시일동안 급격하게 변화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흐름이 교차되는 변증법적 진행과정 즉, 매너리즘시대를 겪으면서 바로크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사조뿐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르네상스 쇠퇴기와 바로크초기인 16세기말부터 17세기 초반에는 매너리즘의 특성인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변형성의 측면에서는 16세기말부터 인체의 고유한 비례체계를 왜곡하고 변형시킨 실루엣이 등장하게 된다. 르네상스 전성기에도 여성들은 몸통을 졸라매는 쿨셋과 스커트를 부풀리는 파oning일 같은 인공물을 사용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인체 비례의 왜곡이 심화되었으며, 높고 거대해진 러프 칼라는 전체적으로 기이한 외관을 완성시켰다.¹³⁾ 남성을 역시 패드와 주름을 사용하여 인체의 비례를 외면하는 실루엣을 만들게 되었으며, 여성처럼

<표 1> 르네상스와 매너리즘의 비교

제반현상		시대	르네상스	매너리즘
발생배경	사회적	경제 : 중세 봉건농업경제 → 초기자본주의, 수공업중심 사회 : 현실에 대한 관심		생산의 기계화와 노동분화 근대 자본주의의 개막 근대화되고 합리화된 노동조직의 출현
	사상적	인간에 대한 자각 플라톤 철학 · 피타고라스 철학		종교개혁 / 반종교개혁의 갈등 몽테뉴의 회의주의 인간소외에 의한 불안 · 동요
조형적 특성	미의 개념	고전주의 · 자연주의		반고전주의 · 반자연주의
	표출양식	예술법칙의 합리화 통일성의 원리 비례의 통일적 기준		양식의 혼란 고전적 가치의 부정 신체비율의 왜곡 · 과장 조화되지 않는 색채

허리를 조이고 어깨와 소매를 과장한 뿌르뿌엥(pourpoint)을 입는 등 복잡하고 화려해졌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단추를 많이 단 것도 기능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복식경향이 유사해지는 것 외에 제스추어와 헤어스타일 등에서도 유사성을 보이며, 모두 과도한 패드와 슬래쉬, 자수, 보석장식 등을 이용한 것은 모호성과 비합리성이라는 매너리즘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III.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상관성

16세기 매너리즘 양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과도기에 심각한 갈등의 결과인 인간의 소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지닌다. 매너리즘은, 완벽하고 질서 있는 조화를 반영했던 르네상스의 기본이념들이 시대적 대변혁과 함께 동요하기 시작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인간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불안과 고통, 혼란을 표현했던 사조이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20세기 후반기에 세계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동과 소비사회의 가치변화, 경제 위기 등의 계속되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더니즘이 차별화 되는 네오-매너리즘(neo-mannerism)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과학적 기술혁명의 시대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기술문명의 발전과 물질적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발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와 기술문명 자체가 초래한 부작용인 공해문제, 에너지 위기, 식량문제 등 16세기 유럽이 경험했던 이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사회의 메카니즘 속에 말려들고 있으며 현대사

회는 기계문명,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제화, 집단 관계의 분화 없이는 존속될 수 없는 사회인데 도리어 그것이 인간소외를 촉진시키는 아이러니를 초래한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의 증가로 사회와 조직이 인간을 압박하고 주체성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며, 점차 현실과 이상간의 격차가 증가되어 가는 한편 현대의 광고 기술이나 선진효과에 따라 욕망의 자극과 기대수준의 증가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의 조장으로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간다.¹⁴⁾

이처럼 현대인이 조직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감에 따라 인간관계측면에서의 심적, 정신적인 유대가 희석되어갈 뿐 아니라, 대량소비로 인한 생활양식의 획일화, 물개성적인 문화행태는 고립적이고 익명적인 소비적 주체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 6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변화와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인간의 ‘物化’현상과 심리적 소외 및 갈등의 국면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또 다른 얼굴의 매너리즘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창조력이 불충분해 보이고 혼란과 모순을 낳게 될 때면 언제나 맹목적인 운명에서 도피처를 마련하려고 하거나 그 자신의 주관적인 관심들이 직접적으로 포괄되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⁵⁾ 는 사실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 그 새로운 기질은 우선적으로 예술작품과 정신적 측면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현대의 소외와 매너리즘의 당위성을 설명해 준다.¹⁶⁾

인간의 소외를 표출한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적 양식과 기법에 있어서도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은 유사한 점이 많으며(표 2), 이에 관해 레이 스미스(C. Ray Smith)는 196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적 디자인 태도는, 기존 원리의 체계적 조작, 스케일의 변형, 표면 디테일의 재배열 등 16세기의 매너리즘적 구성수법

〈표 2〉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상관성

르네상스	매너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원론 고전 질서 목적(기능) 합리성 형이상학 확정성	다원론 반고전 무질서 유희(장식) 비합리성 파라독스 불확정성	이원론 국제주의 질서 목적(기능) 합리성 형이상학 확정성	다원론 역사주의 무질서 유희(장식) 비합리성 양면가치 불확정성

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퍼매너리즘(supermannerism)이라 칭하기도 하였다.¹⁷⁾

이 외에도 많은 현대의 건축가들은 포스트모던건축의 특성이 매너리즘 경향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는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이라는 저서에서 근대건축의 단순성 대신에 모호성(ambiguity)을, 의미의 명료성보다는 풍부성(richness)을, 이것이나-저것 이나(either-or)보다는 이것과 저것 혹은 기타도 포함시키는(both-and) 태도, 배제에 의한 용이한 통일성보다는 포섭에 의한 난해한 통일성의 개념들이 '모호성의 시대'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새로운 디자인개념으로 제시하였다.¹⁸⁾ 그는 또한 관습

적인 것을 비관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평범한 대상들을 비범한 방법으로 배열하며, 친숙한 요소들을 친숙하지 않은 맥락에 놓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지각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¹⁹⁾ 이처럼 디자인의 어휘를 확장하여 대중적 취향과 다원성을 채택하는 것은 현대의 매너리즘 성격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V.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경향

1. 변형성(Deformation)

1) 형태의 변형

〈표 3〉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

시대 제반현상	16세기 매너리즘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발생배경	정치	제국주의, 종교개혁, 계급갈등
	경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대두
	과학기술	진리의 상대성(코페르니쿠스)
	정신사조	자연의 객관화에 따른 인간의 物化
인간 소외		
소외표현 양상	개인주의 반고전주의·반자연주의 파라독스	다원주의, 역사주의, 양면가치
일반적 조형기법	변형성	변형성
	모호성	절충주의와 양면가치
	비합리성	구조적 관계의 역전

이전에는 복식에 착용자의 실루엣을 형성시켜 주는 기본적인 틀과 양식이 하나의 형태를 완성시켰으나 현대복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식관념과 형태에서 탈피한 형태의 변형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규범에 회의하는 16세기 매너리스트들의 일탈적 경향과 유사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의복형태의 변형을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는 형태의 파괴, 비결정적인 여밈, 레이어링기법 그리고 착장방식의 파괴 등이 있다. <그림 2>는 복식 형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모호한 형태의 변형을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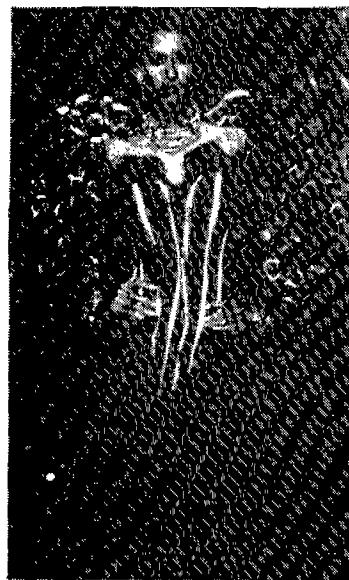
<그림 2> 이 신우 작품
패션발상트레닝 2, p.57.

또한 일정한 방식 없이 매듭을 끓거나 싸매고 두르는 방법에 의한 비구조적인 실루엣과 불확정적인 착장방법 등은 특히 일본의 전위적인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일본미학의 정수인 비대칭과 불균형을 표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레이어드는 다양한 길이의 옷을 겹쳐 입는 것으로 단정하게 차려 입는 전형적인 복식의 제시나 착용방법을 무시하고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새롭고 신선한 감각의 코디네이션으로 개성 있는 감각

을 표현한다. 이것은 하위문화 특히 히피와 짐시문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착용방식이며, 에스닉풍의 영향과 레이어링을 미학적으로 발전시킨 일본복식 디자이너들에 의해 풍부해졌다.

2) 스케일의 변형

신체의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과장,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스케일의 변형은 신체의 이상미에 대한 미적 인식 전환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6세기 매너리즘 예술가들의 자의식적인 신체 스케일의 변화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림 3>은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신체의 과장이 극대화된 스케일의 변형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그림 3> Christian Lacroix의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149.

현대복식에 있어서 스케일의 변형은 부적합한 의복 사이즈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옷은 폐기를 상징하지만 현대복식에서는 인체와 의복의 올바른 사이즈와 '맞음'의 문제는 절대적인 주관적 관념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크고 헐렁한 옷을 입음으

로써 아동기의 항수를 자아내고 몸에 너무 꽉 맞거나 지나치게 작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어린이의 옷을 입은 듯한 다운에이징(downaging) 현상은 의복의 기능성을 초월해 무질서한 느낌을 주는 매너리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균형체계의 파괴

일반적으로 의복의 균형은 선, 색채, 재질의 디자인 요소들이 갖는 양(volume)과 힘(impact)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좌우의 디자인 요소가 시각적으로 같은 무게를 느끼게 할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²⁰⁾ 이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닌 미적인 무게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칭균형뿐 아니라 비대칭균형도 디자인의 균형을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복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균형체계가 파괴된 디자인, 예를 들어 수직, 수평적 구성선의 거부, 비대칭원리의 채택 등은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는 매너리스트의 수법과 상통하고 있다.

〈그림 4〉는 미적 무게를 지닌 비대칭균형의 차원을 넘어서는 균형체계의 파괴로 좌·우, 상·하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4〉 20471120의 디자인
Fashion News, vol. 25,
'95 S / S p.79.

2. 모호성(Ambiguity)

1) 절충주의적 표현

현대 포스트모던 예술표현기법의 하나인 절충주의(eclecticism)는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식을 융합시키는 절충주의는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양식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 젊음과 고령, 부와 빈곤, 동양과 서양 등 복식을 작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범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는 시대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다양성을 수용하는 절충주의는 몽타주²¹⁾처럼 서로 관련 있는 것 혹은 관련 없는 의복구성요소들 즉, 아이템, 소재 및 직물특성, 디자인과 색상을 병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비결정적인 모호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 구성요소 선택에 있어서 일종의 상반되고 모순적인 것을 함께 병치시킬수록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도전적 측면이 증가하여 의미전달은 더욱 다의적이고 모호해지며 나아가 최상의 파라독스적 미학인 그로테스크(grotesque) 효과²²⁾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익살스러운 효과를 위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아무런 논리 없이 결합하는 그로테스크는 비논리적 구성에 기초해 심한 부조화를 일으키는 ‘그럴듯하지 않음’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되는 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호성과 부조화 혹은 대위법적인 조화의 효과를 거두는 절충주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복합적 자극을 통해 의미결정을 유보시키는 감각적 관점의 부재를 초래한다.

대립되는 아이템의 절충은 고전적 / 캐주얼, 포멀 / 인포멀 아이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드레시한 이브닝웨어에 운동화를 매치시키거나 포멀한 재킷에 청바지를 조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5〉는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



〈그림 5〉 Jean-Paul Gaultier의 디자인 Collection II, '92 S / S, p.21.



〈그림 6〉 Jean-Paul Gaultier의 디자인 Fashion News, vol. 38, '97 S / S p.48



〈그림 7〉 Gianni Versace의 디자인 Versace Signatures, p.76.



〈그림 8〉 Bella Freud의 디자인 Fashion News, vol. 39, '97 S / S p.160.

타내는 콜лет과, 캐주얼하면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운동화를 절충시킨 부조화를 통해 남성/여성, 엘리트/대중 등 대립적 요소들이 병존하는 양면가치를 표출시키고 있다. 〈그림 6〉 역시 하의로서 스커트와 팬츠라는 이질적인 아이템을 오버랩 시킨 작품으로 이질적인 것을 양립시키는 파라독스와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아이템의 부조화는 이질적인 재질의 조화라고도 볼 수 있다. 부드러운 소재/거친 소재, 비치는 소재/두꺼운 소재, 고급소재/저급소재 즉, 벨벳/데님, 레이스/가죽 등 일견 의외적인 감각의 코디네이션은 기존의 모든 틀에 박힌 조화와 미에 대한 모방에 식상하여 신선한 영감의 근원, 정신적 탈출구를 모색하던 16세기 매너리스트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기법이기도 했다.

베르사체(Gianni Versace) 역시 팬츠와 스커트 등 대립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제3의 방법을 택하였다.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가벼운 금속직물과 전통적인 직

물 혹은, 가죽과 화려한 직물들의 표현적인 가능성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림 7〉은 '92년 S/S 콜렉션 작품으로 데님재킷과 실크원피스 드레스를 절충시켜 극단적인 소재의 이질화를 부각 시킨 작품이다.

계절감각에 있어서 여름에 두꺼운 케이프를 두르거나 목이 긴 부츠를 신고 겨울에는 혈벗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 또는 겨울용 아이템과 여름용 아이템이 오버랩 되는 것 모두가 매너리즘 기본정신의 하나인 파라독스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8).

상반되는 스타일의 결합은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합성이 채택한 요소들의 단순한 총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모순적인 동기의 짙을 이루는 이원적인 결합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에 도달하여 상반적인 것을 결합하는 취향의 극치인 '카테일 효과'²³⁾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독스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부분들이 병행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반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한 파라독스적인 결과와 도전을 위한 취향, 위험에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규범에 따라 결합되는 것이 금기시되는 때에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더욱 커다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부과 빈곤의 대립개념이 결합된 과시적 빈곤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파라독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과시적 빈곤(Conspicuous poverty)이란 부와 관련된 전통적인 복식규범을 무시하고 부에 대한 적접적인 과시대신에 절제, 간소 나아가서는 오히려 빈곤해 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이다. 이는 벨(Quentin Bell)이 언급한 과시적 위반(Conspicuous outrage) 혹은 데이비스(Fred Davis)가 말한 과시적 실수(Disingenuous mistak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신분상징을 위해 불완전한 복장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뉘앙스'를 풍기는 광의의 poor look을 만들어낸다.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등이 과시적 빈곤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즐기고 있다.

현대복식에 있어서 poor look이 발생한 배경에는 폐품미학, 禪미학, 하위문화의 영향, 애콜로지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²⁴⁾ 그 정신적 기조는 매너리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의 눈부신 경제성장뒤에 가려진 빈곤의 실체와 인간소외는 부 대신 빈곤의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2) 공간개념의 모호성

복식에 있어서 공간은 의복의 결과 안 즉,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분되며, 이는 겉옷과 속옷에 상응한다. 그러나 현대복식의 인프라현상에 따라 그러한 기준의 고정 관념적인 공간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1993년에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인프라 어페럴(Infra-Apparel)전시회'는 속옷의 역사 및 현대적 재창조를 제시함과 아울러 복식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이 현대에 와서 소멸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인프라(Infra)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안에 있는, 아래의'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로서 인프라페션은 크게 형태적 측면과 소재, 구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태적 측면의 인프라페션은 속옷이 겉옷의 기능을 부여받은 관계로 룩으로서 브래지어, 거들, 쿨셋, 페티코트, 슬립 혹은 속옷의 특징을 도입한 의복을 겉옷으로 착용하는 것 또는 겉옷을 통해 속옷을 노출시키는 룩이다. <그림 9>는 존 갈리아노(John Galiano)의 92년 작품으로서 속옷으로만 인식되던 쿨셋, 페티코트를 겉옷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속옷 속에 감추어진 신체까지 노출시킨 극단적인 인프라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John Galiano의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121.

소재와 구성적 측면에 있어서는 안감을 겉감화시키고 의복의 지퍼, 솔기, 시접처리부분 등 의복의 내면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노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속옷과 겉옷에 모두 공유되던 아

이템 예를 들면, 스타킹의 밴드부분을 완전히 노출하거나 속옷의 일부분을 노출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19세기에 이르러 속옷은 유혹의 표본과 관능성의 표출이라는 상징을 띠게 되었지만 자외식 적으로 노출시키는 양상도 볼 수 있으며 점차 제기되는 속옷의 모호성으로 인해 속옷의 형태와 소재, 장식기법을 응용한 화려한 디자인의 걸옷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체를 감싸고 있는 속옷의 노출은 인체의 노출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며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속옷 아이템의 결혼화는 성적 상징의 노출로 해석된다. 특히 속옷의 극단적인 형태인 콜셋은 신체를 은폐한다는 점에서는 정숙성 개념과 연관되지만 실제는 은폐된 부위를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켜 오히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 샹탈 토마스(Chantal Thomass), 비비 앤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등 주로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개인의 은밀한 부분이었던 내의를 외부의 공적 영역으로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마돈나(Madonna), 셰어(Cher), 애니 레녹스(Annie Lennox) 등의 무대 의상으로 집약되는 관체리룩은 여성들의 자유의식 향상, 개성과 창의성의 중시, 생활방식의 변화, 예술이 주는 영감과 디자이너들의 창조욕구, 미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고 있다.

현대사회에 속옷이 걸옷으로 에로틱하게 전위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미와 관련된 전통적 가치관의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문화현상과 양식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기술혁명에 따른 ‘인간의 物化’의 결과인 소외를 매너리즘적 기법으로 극복하려는 존재 확인 방법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비합리성(Irrationality)

복식에 있어서 합리성은 합목적성 즉, 기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매너리즘 경향의 하나인 복식의 비합리성은 기능의 거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식의 구조는 착장자의 신체구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식의 구조적 측면에서 전제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합목적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르네상스 시대 복식 이후에 왜곡과 불합리가 표출된 매너리즘 시대가 도래하고, 장식을 죄악시하고 기능을 우선시했던 모더니즘 시대 복식 이후에 장식을 재 수용하는 포스트모던 복식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반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표현의지는 기능이라는 외적구조안에 가두어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소외라는 정신적 위기감과 결부되어 나타난 공통분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6세기 매너리즘 예술에서 나타났던 비합리적인 표현이 인간의 저변에 내재된 제한되고 억압된 혀약한 육체와 지상의 생명 속에 유폐(幽閉)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감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현대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합리적 현상 역시 거대한 서사구조에 가리워진 자아를 찾기 위한 인식의 모색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에서 비합리성이라는 매너리즘의 정신을 표출시키는 방법을 시작적 착시기법과 구조적 불합리와 불일치, 플라주기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시작적 착시기법

주로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기능과 실재를 허구와 환상으로 치환시키는 방법이다. 흔히 트롱프 레이(Trompe-l'œil) 기법으로 알려진 것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이 환상적 분위기를 창출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이템과 착장, 디테일 등의 위장을 통해 현실과 환상을 양립시키는 이 기법은 이미 매너리스트 건축가들이 현실과 환상의 벽을 허물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그림 10〉 Moschino의 디자인
Fashion News, vol. 24
'95 S / S p.156.



〈그림 11〉 20471120의 작품
Fashion News, vol. 25
'95 S / S p.74.

었다. 〈그림 10〉은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으로 블라우스 위에 재킷을 걸쳐 입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회화적 기법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허구적인 디자인으로 유회적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2) 구조적 불합리와 불일치

구조적 불합리와 불일치를 나타내는 기법으로는 전환, 중첩, 생략 등이 있다. 전환은 소위 데뻬이즈망(Dépaysement)이라는 일종의 엉뚱한 환경에 위치시켜서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이며,²⁵⁾ 크게 위치의 전환과 기능의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치의 전환은 의복의 상·하, 전·후의 전환 및 디테일 위치의 뒤바뀜으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대한 기대를 전복시키는 방법이다. 기능의 전환은 사용목적과 기능이 뚜렷한 아이템과 디테일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며, 전환법은 규범을 파괴하고 기대와 예상을 깜으로써 유회감과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그림 11〉은 커프스가 달린 소매부분을 하의에 도치시킨 예이다. 이처럼 전환법은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어 ‘낯설음’과 ‘신비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평소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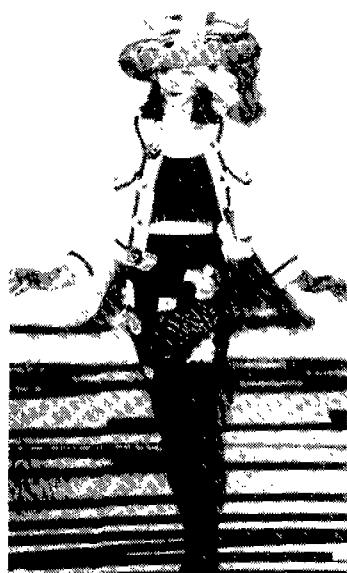
던 사물의 이면을 드러내,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첩과 생략은 아이템을 불필요하게 덧붙이거나 생략하는 방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부가시키거나 꼭 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모두 기능적인 면에서 비합리적인 불일치가 된다.

3) 끌라주기법

끌라주(Collage)란 20세기 회화 특히 큐비즘에서 실험하던 빠삐에 폴레(Papiers-Collés)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일상의 소재를 혼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시초는 이미 16세기 매너리즘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상성에 눈을 돌려 반드시 이상적이지 않은 것에도 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 매너리스트 건축가들이 이미 끌라주기법을 통하여 파격과 이탈이라는 자의성(恣意性)의 심리를 표현한 바있다.

이러한 매너리즘의 정신이 깃들여있는 현대 복식에서도 끌라주적 기법은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복식재료와 일상용품간의 이질성의 벽을 넘는다는 정신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모든 요소들을 부적합한 면에 붙여놓거나 장식아이템을 집적시키고 동시적으로 나열시킴으로써 그것들



〈그림 12〉 Moschino의 디자인
패션발상트레닝 5, p.9.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임의성을 통해 자유, 불연속성, 우연성과 유머를 도입하고 전통적, 합리적인 모든 가치들을 전복하고자 하는²⁶⁾ 폴라주는 현실과 예술의 이분법을 극복하려했던 매너리스트들의 정신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12〉는 복식재료로 사용되기에는 의외적인 재료들을 쌓은 모자형태와 의복에 부착된 오브제들이 유희적 감각을 부여하는 모스키노의 작품이다.

폴라주는 기능을 우선시하던 르네상스적 사고와 모더니즘적 사고에 대한 반발로 반기능적인 비합리의 미학을 수용한 매너리스트들과 포스트모던복식에 있어서 과잉장식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패치워크기법처럼 너무 많은 색채와 재료의 사용은 상식적인 조화의 감각을 상실한 무질서와 부조화 혹은 혼란의 감각을 부여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폴라주기법을 절충주의의 맥락에서 볼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본래의 기능이 장식적 측면으로 전도된 점을 들어 비합리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V. 결 론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시대의 전반적인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해 야기된 인간소외현상을 적시한 예술가들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도외시하지 않고 자의식적으로 표현한 예술양식으로서 바로크시기 이전까지 사회·문화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정신은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서 전개되는 인간소외현상과 유사하며 따라서 이전에 매너리즘을 평가절하 하던 것에서 시대적 필연성으로까지 부상되는 재평가작업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매너리즘 양식이 포스트모더니즘 양식과 유사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6세기의 매너리즘과 현대 포스트모던 상황의 유사성을 전제로 현대복식에서 나타나는 제현상을 매너리즘적 특성에 접목시켜 고찰하였다.

16세기에 매너리즘이 태동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내분과 다른 나라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이탈리아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감이 만연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기계생산으로 인한 노동의 분화로 인간을 생산에서 소외시키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사상적으로는 형식주의적 타성에 젖은 카톨릭교에 대한 반발로 인한 종교개혁과 또 그것에 반대한 반종교개혁이라는 첨예한 종교적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절대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였다. 또한 군건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지구가 단지 거대한 천체 속에서 스스로 회전하고 있는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거대한 르네상스적 절대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은 예술과 복식에도 그대로 표출되어 대상의 형태와 비례가 과감히 변형되고, 고전의 규범과 기준이 전복되었으며 다양

한 요소들 심지어는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고 대비시키는 파라독스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계를 역전시키는 양상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너리즘 양식의 특성을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법의 기저에 인간의 소외를 파라독스적 표현으로 해소하려는 매너리스트들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매너리즘의 특성을 현대복식에 적용시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복식에 나타난 변형성은 크게 형태의 변형, 스케일의 변형, 균형체계의 파괴로 구분할 수 있다. 복식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는 형태 자체를 파괴하는 방법과 착용방법에 있어서 레이어드방식과 비결정적인 여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용자의 신체자체를 과장·축소시키는 왜곡과 함께 복식과 신체의 부조화를 야기시키는 스케일의 불균형도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즈의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인 균형체계를 깨뜨리는 비대칭도 변형성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복식에 있어서 절충주의적 표현기법은 그 의미전달에 있어서 모호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양한 양식 즉, 남성과 여성, 짙음과 고령, 서양과 동양 등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범주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등 시대적 맥락에도 절충과 혼합이 가능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는 몽타주 기법처럼 상호관련이 있거나 없는 의복구성요소들 즉, 아이템, 소재 및 직물특성, 디자인과 색상을 병치시키기 때문에 비결정적인 모호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 구성요소선택에 있어서 일종의 상반되고 모순적인 것을 함께 병치시킬수록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도전적 측면이 증가하여 의미전달은 더욱 다의적이고 모호해지며 나아가 최상의 파라독스적 미학인 그로테스크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양식적 절충뿐 아니라 공간개념에 있어서도 의

복의 내부와 외부에 상응하는 속옷과 걸옷의 개념이 해체되는 인프라패션은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양면가치를 유발시키면서 파라독스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매너리즘적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현대복식에서 기능에 모순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구조관계의 역전을 시도하는 비합리성 역시 매너리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비합리성을 표현하는 기법으로는 ‘없음’과 ‘있음’을 대체시키는 시각적 착시기법과 데并不意味망처럼 기능을 역전시킴으로써 의외성과 참신함을 부각시키는 구조적 불합리와 불일치, 그리고 이질적인 장식요소를 집적시키고 동시적으로 나열하는 끌라주기법과 과잉장식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16세기 매너리즘은 분명히 현대의 포스트모던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그 기법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은 네오 매너리즘이라 칭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Drew, Philips, Mannerism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A+U, 1977, p.38.
- 2) 양 회석, 예술 철학(中), 자유문고, 1980, pp. 212~213.
- 3) Hauser, Arnold,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백낙청, 반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1980, p.111.
- 4) 앞글, p.111.
- 5) Hauser, Arnold, 예술과 소외, 김진욱 역, 종로서적, 1981, p.81.
- 6) Hauser, Arnold,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앞글, p.128.
- 7) 김 진범, MANNERISM 건축과 「포스트－모던」 건축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31~36.
- 8) 윤 항수, 16세기 매너리즘 건축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69~72.

- 9) 박 흥서, 「포스트 모던」건축의 매너리즘적 경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63.
- 10) Hauser, Arnold, 예술과 소외, 앞글, p.20
- 11) 윤 흥수, 앞글, p.69
- 12) 최 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르네상스·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55~70.
- 13) 정 흥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6, 135.
- 14) 고 영복 편, 현대사회론, 사회문화연구소, 1992, pp.23~24.
- 15) Mumford, L., 예술과 기술, 김문환 역, 을유문화사, 1985, p.60.
- 16) 박 흥서, 앞글, p.44.
- 17) Smith, C. Ray., Supermannerism,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 E.P. Dutton, 1977, p.xxiii.
- 18) 앞글, p.138.
- 19)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Museum of Modern Arts, New York, 1977, pp.45~105.
- 20) 이 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0, p.143.
- 21) 몽타주(montage)는 불어로 '부분품조립' 즉, 부분부분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예술적 요소들을 배열, 결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영화이론가인 Eisenstein은 단편과 단편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제3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몽타주의 원리를 영화뿐 아니라 모든 문학과 예술의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김 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이론, 열화당, 1996, p.11
- 22) 안 선경, 현대 복식에 표현된 측면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44~46.
- 23) Calabrese, Omar, Versace Signatures, New York · London · Paris : Abbeville Press, 1992, p.14.
- 24) 양 속희, 이 정후, 현대복식에 나타난 신분상징의 양면가치,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1집, 1996, 12, pp.115~118.
- 25) 신 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pp. 217~218.
- 26) 앞글, p.112.

ABSTRACT

A study on the Mannerism tendencies in the Contemporary Costume

The Mannerism which was born on Italy in 16th century was the critical trend of art influencing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trends, and was the first modality which respected the individual sense of artist. The cultural situation of that time especially the alienation of men is similar to the pluralism of value, the coexistence of conflict, the acceptance of heterogeneity and uncertainty in modern century.

This paper analysed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trend of Mannerism in modern costume by comparing current trend from the past focusing the fact that the over-all situation in this century is similar to that of Mannerism in 16th century.

In this paper, the author suggests the Deformation, Ambiguity and Irregularity as the character of manneristic trend which has resolved the sense of alienation of men by paradoxical expressi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characteristic of Mannerism to the modern costume is followed :

1. The Deformation in modern costume is grossly subdivided to the transformation of morphology, the transformation of scale and the breakdown of equilibrium.
2. The ambiguity in the modern costume can be subdivided to the eclecticistic expression

and the ambiguity of spatial concept(between inner and outer garments).

3. The illogicalities in modern costume are the technique of illusion, structural illogicality and the collage technique.